

특집

대학주보 뉴스 이용 경로, '모바일'·'소셜미디어'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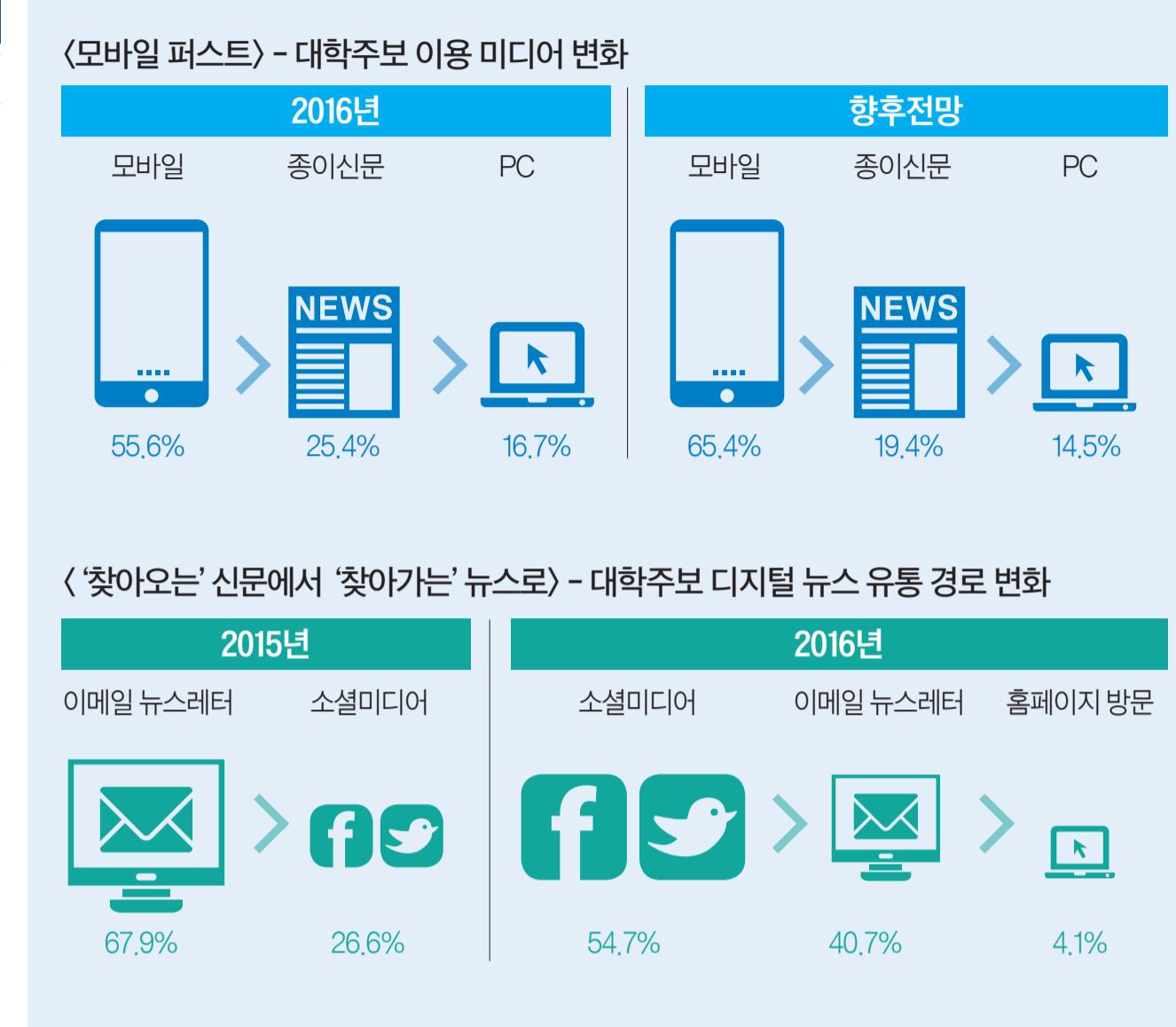
창간 61주년 기념 이용자 설문조사

차관호 기자 jyppfhv@knu.ac.kr

대학주보는 지난 12일, 창간 61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의 나이를 맞이한 대학주보는 그간 학내 유일의 언론이라는 깨지지 않을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2013년 대학주보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매체', '가장 신뢰하는 매체' 부문에서 대학 공식 매체 등 타 매체에 비해 낮은 결과를 받아들고 깊은 위기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내 유일 매체'라는 환상 속에 감히 독자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결과에 다름 아니었다. 이제 2013년 이후 3년여에 걸친 '혁신'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독자의 의견을 통해 중간 점검해 본다.

우리 신문은 2013년 하반기 이후 뉴스의 디지털화와 모바일 최적화, 소셜 미디어를 통한 기사 유통 체계를 좀더 가속화해왔다. 이미 2013년 이전에도 이러한 노력은 진행해오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2010년,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겨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했다.(대학주보 제1455호 1면, 2010.03.01) 2012년엔 속보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페이지를 강화하고 SNS 운영을 통해 독자에게 더 빠르고 생생한 현장을 전하려 했다.(대학주보 제1508호 1면, 2012.03.05.)

종이신문에서 모바일로 이동
고정형 단말기 이용자 줄어



자(19.4%)보다 적었다.

모바일, 데스크탑 등 온라인을 통해 대학주보 기사를 접한다는 이용자들의 유통 경로 역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2015년 조사에서 이메일 뉴스레터(67.9%) 소셜미디어(26.6%), 홈페이지 직접 방문(3.6%) 순이었던 대학주보 기사의 유통 채널은, 2016년 올해 들어 소셜미디어가 54.7%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이메일 뉴스레터(40.7%), 홈페이지 직접 방문(4.1%)으로 변화했다. 향후 대학주보 기사를 보고 싶은 채널에서도 소셜미디어가 50.7%, 이메일 뉴스레터 41.8%, 홈페이지 직접 방문 6.1%로 학내 구성원의 콘텐츠 이용 경로가 스스로 뉴스를 ‘찾아가는’ 형태에서 ‘뉴스 발신자가 구성원에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어떤 뉴스 아이템을 어떤 뉴스 포맷으로 전달받기를 원하는지 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다양한 아이템, 포맷 실험을 거쳐 구성원이 원하는 내용과 형식을 전달해드릴 것이다.

유통경로 선호도 순서

SNS > E-mail > 홈페이지 직접방문

구성원의 신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최근 Space21, 프라임사업, 캠퍼스 갈등 등 굵직한 학내외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여론을 종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3년간, 대학주보가 시도했던 혁신 역시 더 많은 학내 구성원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아무리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한다 해도 독자와의 공유가 있지 않다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 가디언, 슈피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적인 유력지들이 앞다투어 ‘혁신보고서’를 써내면서 ‘자기반성’에 몰두하는 것은 이용자의 변화가 매체의 혁신과 그를 통한 생존을 강제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주보의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항상 구성원 옆에 자리하는 뉴스 유통망, 구성원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 개발, 대학언론이기에 가능한 대담한 포맷 실험, 이용하기에 편리한 인터페이스 등 다시 찾고 싶은 뉴스 생산자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혁신과 실험은 계속 될 것이다. 대학주보에 보내준 신뢰에 감사드린다.

일 발송하면서, 강화된 소셜미디어와 함께 독자와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기도 했다. 대학주보의 형식과 내용 전 부문에 걸친 그간의 혁신은 학내 구성원의 신뢰를 다시 찾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3년 단과대학 홈페이지(30.9%)와 당시 문화홍보처 제공 이미지(21.4%)에 자리를 내줬던 (대학주보 19.2%) 학내 매체 이용 순위는 2016년 조사에서 54.2%로 1순위를 차지했다. 단과대학이나 학과 홈페이지는 16.1%로 여전히 구성원들이 자주 찾는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페이지의 이메일 뉴스레터 역시 9.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관련 그래프, 1면)

신뢰도 되찾았다. 2013년 설문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무엇’이나 질문에 대학주보는 응답자의 17.4%의 선택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학과 홈페이지는 34.0%는 물론 당시 문화홍보처의 이메일

뉴스레터 17.7%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3%가 학내 매체 중 대학주보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개별 기사에 대해서도 ‘대체로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가 각각 65.4%, 6.5%로 나타났다. 단과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도 15%로 높게 나왔으며 홈페이지의 이메일 뉴스레터는 응답자 8.1%가 가장 신뢰한다고 답해 세 번째로 자리했다.

대학주보 이용과 관련해서도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라는 지구적인 미디어 ‘화두’는 대학주보라고 다를 수 없었다. 대학주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종이신문에서 모바일로 변화했다. 2013년과 2014년 설문조사에서 각각 응답자의 32.6%, 31.5%가 종이신문을 통해 대학주보를 접한다고 응답했던 이 수치는 2015년 급변했다. 2015년 설문조사에서 이동형 단말기스마트폰, 태

블릿PC 등을 통해 대학주보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로 나타났다. 반면 종이신문을 통해 대학주보를 읽는 응답자는 25.8%에 그쳤다. 올해 조사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됐다. 이동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뉴스로 대학주보를 접한다는 응답자는 55.6%, 종이신문(25.4%), 고정형 단말기(16.7%)에 비해 높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종이신문보다 PC와 같은 고정형 단말기를 이용해 온라인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 비중이 격감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대학주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서 더 두드러졌다. 2013년 조사에서는 21.5%의 응답자가 이동형 단말기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6년에 와서는 65.4%의 응답자가 이동형 단말기를 쓸 것이라 했고, 고정형 단말기를 통해 대학주보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14.5%로, 종이신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

2016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2016년도 국제캠퍼스 예비군 기본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훈련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훈련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지원 중 1~6년차 예비군 전원
나. 훈련장소 : 용인시 예비군훈련장용인시 청인구 운학동 목동로 87 / 55사단 172연대 3대대)

다. 훈련일시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5월27(금)	국제대학 국제·경영대학 ○ 응용과학대학	
5월30(월)	체육대학	
5월31(화)	생명과학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6월1(수)	동서의과학과 ○ 전자정보대학	09:00 ~ 18:00
6월2(목)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6월3(금)	○ 공과대학 : 건축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산업경영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환경화학과 ○ 특수대학원(교육, 이트퓨전, 테크노경영)	
6월10(금)	○ 교직원 ○ 외국어 대학 ○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국제, 동서의학, 체육)	

※ 개인별 대상자 명부는 훈련 2주 전에 대학(원)별 학과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2.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운동화, 고무장화)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착용시 입소 불가)

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입소불가

3. 교통 안내

가. 학교지원 차량(임대 버스)을 강남역 및 국제캠퍼스 정문 앞 2곳에서 운용

1) 강남역 : 1번 출구 전방 200m(번화가 출구 후방 50m) 우리은행 365코너 앞에서 07:40 출발

2) 국제캠퍼스 : 학교 정문에서 07:50 출발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치에 도착

4. 유의 사항

가. 대상자 명단에 누락된 자는 임의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 연대본부에 확인하여 대상자명단에 포함 후 훈련에 참가하여 훈련이 유료화

나. 개인 사물보관함에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귀중품(시계, 금전, 반지 등)은 보관하지 말 것(분실시 개인 책임을 명심할 것)

다. 대학(학과별) 훈련일정은 훈련부대의 수용 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훈련일자 변경은 절대 불가함.

라.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자는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

단위 훈련을 신청하여 훈련에 이수하거나 훈련여부 신청(관련사항 첨부)을 필요 할 것

라. '16년 훈련 시 입소통제 지침 : 09:00까지 도착하는 입소불가 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마.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04 ~ 2007학년 대학생 중, 금학기 현재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거나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시작과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구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개영어시험능력으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전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이수면제 기준]

면제종류 개별 대학

TOEFL CBT IELT TEPS TOEIC G-TELP 면제내용

국제아대, 국제대학원, 사회대학원 207 이상 76 0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0(Lvel2) 이상

국제화 추진대학 193 이상 69 이상 561 이상 650 이상 57(Lvel2) 이상

국제화 추진대학원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6(Lvel2) 이상

제3대학원 147 이상 51 0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Lvel2) 이상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학생교양 이수면제 예외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 특성에 의해 특장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제3장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 1,2단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 1 단계	제 2 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원화1	초급중국어원화2	6
일본어강독1	일본어강독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라시아어1	라시아어2	6
조선포랑스어1	조선포랑스어2	6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201~220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단계 : 독후강 풍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 단계 : 글쓰기 시험 교과 내용 이해도 평가 / 논술 시험

80점 이상 통과